



제9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아이디어를
입력하세요

WWW

here hat hy



주최·주관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Seongnam city Youth Happiness Council



성남시청소년재단
SEONGNAM CITY YOUTH FOUNDATION

후원 |

원 |



성남시



성남시의회
Seongnam City Council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GYEONGGIDO SEONGNAM OFFICE OF EDUCATION



가천대학교

제9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아이디어를
입력하세요
WWW
here hat hy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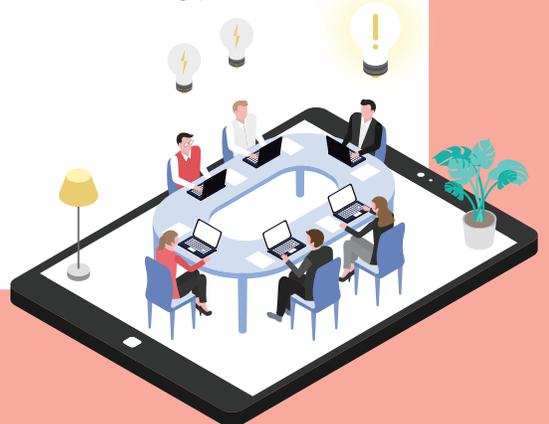


1 >> 제9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 인사말 03
-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란? 04
- 대회주제 04
- 사업개요 04
- 세부운영내용 05
- 시상내역 06

2 >> 본선진출 제안내용

- 블라드오가가 09
- 통학러들 13
- 기쁨해 17
- 꿈나르샤 23
- 별다래 27
- 꿈드림청소년단 '드림윙즈' 33
- 같이의가치 37
- 청소년운영위원회 가온누리B 41
- 가온누리 45
- 생각대로 팀 51



Concept
T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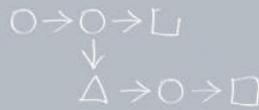
Develop
80%

IDEA

Social
Networks



Plan



인사말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장

안녕하세요.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장 김대희입니다.

먼저 올해로 9회를 맞이하는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대회를 통해 성남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시정에 녹여지고,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9회라는, 짧지만 긴 제안대회 역사 속에서 성남시 청소년들이 제안해주신 다양하고 참신한 제안들이 분명 성남시가 발전하는데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비록 누군가의 시선에는 작은 아이가 꾸고 있는 소소한 꿈에 불과하겠지만, 그 꿈들이 모여 청소년 친화도시, 시민이 시자인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발돋움 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부족할 뿐입니다. 그 부족함을 채워갈 수 있도록,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 청소년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번 대회가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되어 청소년의 의견이 존중받고, 시민적 권리가 보장되는 참여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는 사회, 청소년들이 더욱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도 열심히 함께 뛰면서 발전하는 의회가 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한걸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 제4대 행복의회의 슬로건처럼 한걸음은 분명 청소년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열정, 참여, 목소리로 이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제안대회와 행복의회가 그 청소년의 한걸음에 디딤돌이자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장 김대희

성남시청소년재단 이사장

반갑습니다. 성남시장 은수미입니다.

『제9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본선』에 참가해주신 청소년 및 내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와 소중한 고민을 담은 제안으로 본선에 진출하게 된 10개 팀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는 성남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청소년 여러분의 의견을 담아 함께 고민하고자 지난 9년을 이어온 대표적인 성남시 청소년 참여 플랫폼입니다.

오늘 정책제안 대회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인 청소년 여러분이 올바른 의식으로 행동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이 지역 사회를 향한 관심의 목소리를 내고, 생각을 전하는 행동이 진정한 참여이며, 이를 통해 시민적 권리를 보장받고 시민의식이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성남시에서도 여러분의 제안들이 시민이 주인인 성남, 청소년이 당당한 희망도시 구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행사를 위해 애쓰신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와 성남시청소년재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사회참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장 은수미



1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란?

청소년의 사회참여 및 민주시민 역량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청소년 참여대회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상 및 문제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인 해결책 및 개선방안을 도출·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 청소년의 사회참여의식 및 그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올해 9회를 맞이하는 대표적인 성남시 청소년 참여의 장이다.

2 대회주제

제9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내가 만약 시장이라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부터 주요 정책까지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세요.

3 사업개요

- 사업명 : 제9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 아이디어를 입력하세요 WWW -
- 일시 : 2019. 11. 9.(토) 14:00 ~ 18:00(본선)
- 장소 : 성남시청 한누리
- 대상 : 관내 청소년(만9세 이상 24세 이하) 개인 또는 팀 * 팀 인원 제한 10명 이내
- 내용
 - “내가 만약 시장이라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부터 주요 정책까지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아이디어 제안
 - 제안내용 서류(예선) 및 본선심사, 시상 등
- 주최·주관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성남시청소년재단
- 후원 : 성남시, 성남시의회,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가천대학교



4 세부운영내용

제9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 대회 설명회

- 일 시 : 2019. 8. 31.(토) 13:00 ~ 14:00
- 장 소 : 중원청소년수련관 공연장
- 대 상 : 제안대회에 관심 있는 누구나
- 내 용 : 제안대회 참가 및 제안서 작성요령 등 교육

제안서 접수

- 제출기간 : 2019. 10. 16.(수) ~ 23. (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제안대회 홈페이지(<https://www.snyouth.or.kr/hellomonya>)를 통한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제안서 각 1부(제안서 5매 이내)
- 제안내용 : “내가 만약 시장이라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부터 주요 정책까지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아이디어 제안

구분	내용
제안배경	- 제안하는 내용의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내용 등
제안내용	-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또는 사업) 내용
기대효과	-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또는 사업)의 기대효과

서류심사

- 심사기간 : 2019. 10. 24.(목) ~ 29.(화)
- 심사방법 : 심사위원 서류심사 100%(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 심사위원 구성 : 행복의회 의원 2명 포함 내·외부 청소년 전문가 5인 내외
- 심사기준 : 문제인식, 체계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 결과발표 : 10. 29.(화)
- 발표방법 : 재단 및 제안대회 홈페이지, 개별연락 등

제9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본선)

- 일 시 : 2019. 11. 9.(토) 14:00 ~ 18:00
- 장 소 : 성남시청 한누리
- 대 상 : 본선진출팀 10팀 및 청중평가단
- 내 용 : 제안대회 본선 운영(본선진출팀 제안 발표, 심사 및 시상 등)

시간		소요시간(분)	내용
부터	까지		
12:00	13:00	60	참가팀(본선진출팀) 리허설
13:00	14:00	60	참가자, 청중평가단, 심사위원 출석 확인
14:00	17:00	180	본선진출팀 제안내용 발표
17:00	17:30	30	초청공연 및 심사결과 집계
17:30	18:00	30	시상식 및 단체사진 촬영



○ 본선진출팀 및 제안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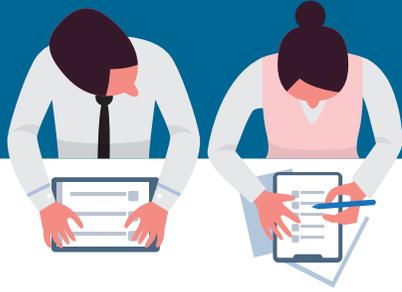
참가팀명	제안내용
블라드오가가	블라드를 재정비, 재설치한다
통학러들	청소년 등·하교 상황 개선
기쁨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선거 소음 규제 권고 지침
꿈나르샤	청소년 성교육 활성화 방안 : 성남시는 곧 성(性)지가 됩니다.
별다래	우리 같이 건너요 안전한 횡단보도
꿈드림청소년단 '드림윙즈'	성남만의 일석사조 공병보증금 반환!
같이의가치	청소년증과 학생증 활성화 방안
청소년운영위원회 가온누리B	불법촬영 철강철경! 찍지마세요!
가온누리	생존수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등학생으로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
생각대로 팀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쓰레기 투기 장소 지정 및 스마트빔

5 시상내역

훈격	시상팀	비고
계	10팀	
성남시장상	2팀	1등 팀 교사 공로상 별도 지원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상	2팀	
성남시의회 의장상	2팀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상	2팀	
가천대학교 총장상	2팀	



제9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01

블라드를 재정비, 재설치한다.

블라드오가가 / 이매중학교

06

**성남만의 일석사조
공병보증금 반환!**

꿈드림청소년단'드림윙즈' /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2

청소년 등·하교 상황 개선

통학러들 / 한솔고등학교

07

청소년증과 학생증 활성화 방안

같이의가치 / 늘푸른고등학교

03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선거 소음 규제 권고 지침**

기쁨해 / 운중고등학교

08

**불법촬영 철권철권!
픽지마세요!**

청소년운영위원회 가온누리B / 판교청소년수련관

04

**청소년 성교육 활성화 방안 :
성남시는 곧 성(性)지가 됩니다.**

꿈나르샤 / 중원청소년수련관

09

**생존수업이 실효성을 높이고
고등학생으로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

가온누리 / 한솔고등학교

05

**우리 같이 건너요
안전한 횡단보도**

별다래 / 수정청소년수련관

10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쓰레기 투기 장소 지정 및 스마트빔**

생각대로 팀 / 복정고등학교

제9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아이디어를
입력하세요**
WWW
here hat hy



볼라드를 재정비, 재설치한다.

볼라드오가가



< 소속기관 >

이매중학교

< 제안자 >

공나윤 박규리 허지원 이인겸 김가진
김태이 장연우 박찬윤 도세현

**제안주제** 볼라드를 재정비, 재설치한다.인도 위 암초
볼라드

볼라드 호가가

볼라드의 새로운
발견

이매중학교 NKC

**1. 제안하는 내용의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내용 등**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면, 눈앞에 띄엄띄엄 위치해있는 원기둥 모양의 시설물을 보았을 것이다. 이 시설물은 우리에게 친숙하지만, 정확한 명칭을 아는 이는 드물다. 이 시설물의 이름은 볼라드로, 사전적 정의는 차량이 인도나 잔디밭 따위로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이다. 이 볼라드의 구조 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일 경우

- 가.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 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센티미터로 하고, 그 지름은 10~20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 마.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설치된 볼라드 중에서도 석재 볼라드는 이런 기준을 지키며 사전적 의미의 역할은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다만 온전히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만 하는지 의문이 드는 사건사고들이 보도된다.

볼라드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중 대표적 사례는, 바로 시각장애인의 충돌로 인한 부상이다. 이러한 문제는 여러 매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으나, 실제 대안 및 대책,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볼라드에 부딪혀 정강이에 멍이 들고, 이를 피하려다가 다른 장애물에 부딪혀 불편을 겪은 경우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심지어는 볼라드가 무분별하게 설치된 도로를 걷는 것이 마치 지리발을 걷는 기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앞서 언급된 시각장애인들을 제외하고도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 등이 자주 볼라드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불편을 겪는다.

또한, 일반인들 중에서도 실수로 볼라드에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혀 중상을 입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규격 미준수, 구체적 기준 미비 등의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볼라드가 위에 나와 있는 법적으로 정한 규격에 맞지 않음을 알 수 있고, 구체적인 필요성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설치되었으며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볼라드의 훼손을 통해서도 볼라드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성남시에는 꽤나 많은 수의 볼라드들이 훼손되고 손상되어, 마치 쓰러기둥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볼라드의 높이가 80cm 이하로 내려가 역시 시설 기준에 못 미치게 되며 높이가 내려가면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볼라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2.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또는 사업) 내용

위의 문제점을 통해 현재 성남시 곳곳의 블라드가 이동식 블라드로 재설치가 되거나, 새로운 블라드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판교의 몇 곳은 블라드가 이동식 블라드로 재설치 되었지만, 성남시 지역의 여러 곳은 블라드의 상태가 안전하지 않기에 이 제안이 필요하고, 충분히 성남시에서 실행 가능하다고 생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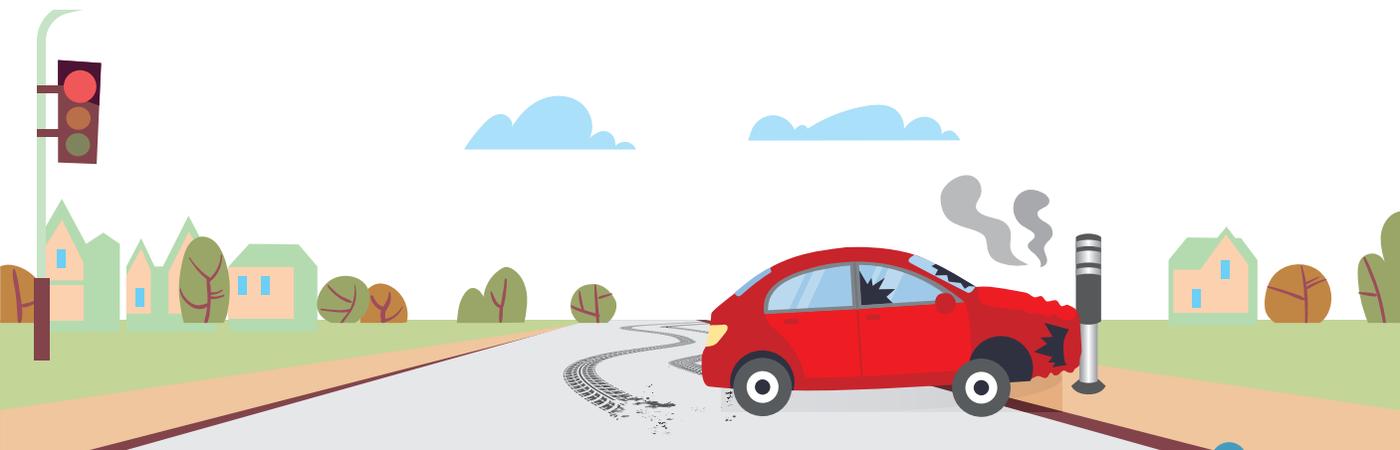
성남시가 블라드에 대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교통약자, 그 중에서도 특히 시각장애인의 부상 문제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실태 파악 및 규격 미준수 철거 또는 재설치를 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구체적으로 서술하자면, 블라드 앞에 점자 블록을 일정한 거리 앞에 설치하며 일정 거리를 유지해 블라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시각 장애인들과 같은 교통 약자가 블라드에 부딪히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해야 한다. 또,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의 부딪힘을 막기 위해서 밤에도 잘 보일 수 있게 블라드를 반사염료가 들어간 밝은색으로 칠한다.

두 번째로, 규격 미준수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이다. 블라드는 도시 전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블라드들은 대개 정확한 규격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도시 전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블라드에 관해 검사를 하고, 법규에 정해진 규격에 맞는지 철저히 검사한다. 특히, 블라드 등록제를 시행시킨다. 블라드 등록제와 관련하여서는 등록제를 실행하며 블라드의 위치정보와 속성 정보를 관리하는 새로운 직업도 생겨났다. 이런 직업을 통해 블라드 등록 규제를 엄격하게 하여 규격에 맞지 않는 블라드를 줄여 부상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설치 규정을 지키지 않을 시, 벌금을 물게 하여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성남 시민들에게 블라드를 알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블라드를 보기는 했지만, 막상 이것이 어떤 용도인지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래서 가끔 블라드를 훼손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며 블라드의 디자인이 긴 원형 모양, 동그란 원 모양 등 매우 다양한데 도시와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통의 사람들이 블라드를 꺼리므로 우선, 이 블라드가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교육을 통해 제대로 알린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학교 점심시간이나 따로 교육 시간을 만들어 수업 시간에 블라드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릴 수 있다. 이렇게 블라드를 알린 뒤, 설문과 같은 여론 조사를 통해 블라드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가며 디자인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훼손이나 불만을 느끼는 일을 없게 하도록 한다. 그렇게 되면 블라드를 그 지역의 특성과 안전성 등에 합리적으로 디자인하여 일반인들의 편리함을 보장하는 동시에 교통약자들의 보행권 또한 지킬 수 있다.

더불어 블라드를 설치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논의한 결과, 블라드를 필요에 따라 숨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여러 기능이 가능하게 만들며, 안내방송이 나오게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그뿐만 아니라, 블라드에 온도나 날씨를 알 수 있게 만들며, 신호등 색과 연동하여 멀리서도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블라드의 높이가 승용차나 SUV 차량의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아 자동차와 블라드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블라드의 겉 재질을 고무로 만들어 승용차가 긁히거나 찍히는 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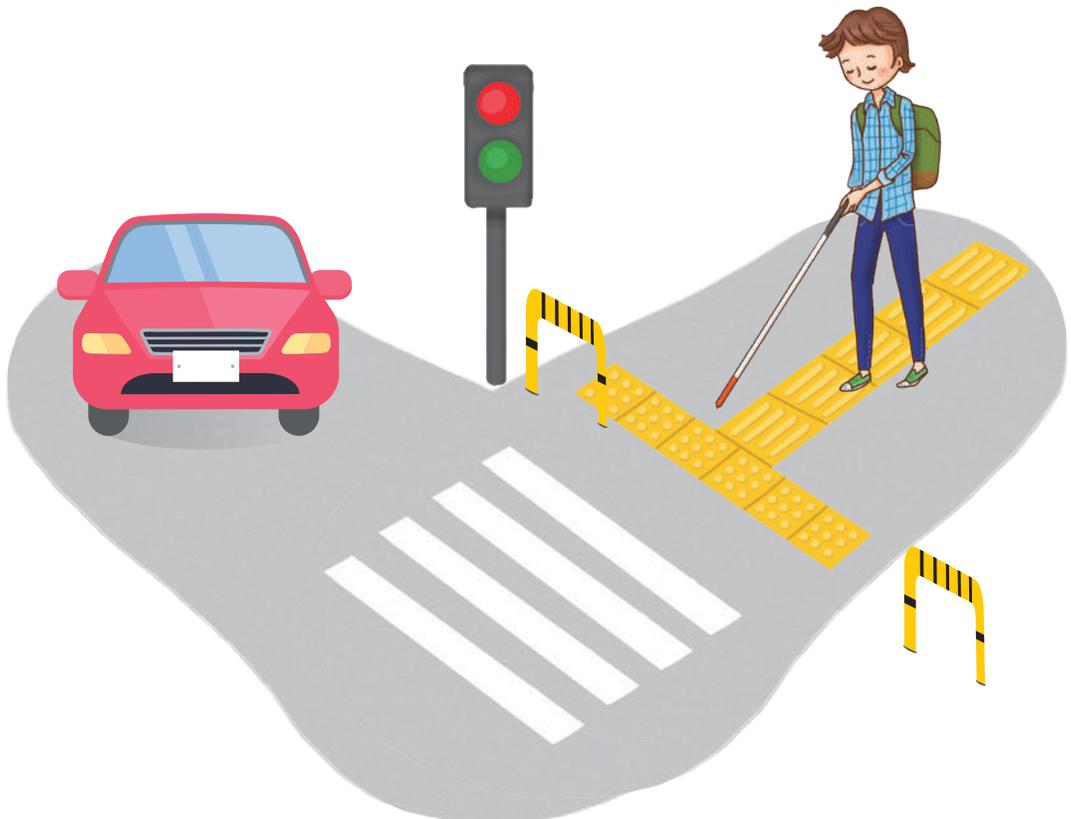
3.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의 기대효과

블라드는 자동차가 보도 등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 구조물이다. 이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구조물이지만 막상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분들이 충돌하여 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구조물들을 더욱 더 좋은 형태로 발전시킨다면 시각장애인분들이 지팡이를 사용하여 블라드의 위치를 쉽게 인식하고 인지하기 어려운 블라드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유모차와 전동휠체어 등이 더욱 더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다. 현재, 간혹 볼 수 있는 쓰레기가 가득 차있거나 범허있는 블라드가 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제안이 외관상으로도 더욱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된다.

현재, 길거리에 있는 블라드를 본 사람들은 많겠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무슨 이유로 만들어졌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블라드의 수가 늘어나고 그 형태가 안전하고 깨끗하게 변형되는 그 이유를 성남시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은 우리나라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 좋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고려된다. 또, 블라드라는 것을 더 의미 있게 여기게 되고 이것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이를 인식하고 전보다 더 힘쓰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더 나아가, 블라드 수를 여러 지역이 한 번에 바꾸는 것이 아닌, 한 지역 먼저 줄이거나 변형하면서 천천히 바꾸게 된다면, 적응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디자인과 방안을 찾게 될 것이다.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성남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그리고 그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그들의 가족들 역시 걱정이 줄어들 것이다. 시각장애인 분들이 혼자 다니기에는 아직 위험한 이 도시에서 이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 통해 성남 시민 모두가 노력한다면, 성남시는 사회적 약자까지 배려하는 모습을 갖추게 되며 더욱 발전할 것임이 틀림없다.

특히, 성남시는 '살기 좋은 배려하는 도시'의 상징이 될 것이다. 또한, 성남시가 먼저 나서게 된다면 언젠가 다른 지역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선한 영향력이 점점 퍼져나가, 언젠가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고려된다.





청소년 등.하교 상황 개선

통학러들

< 소속기관 >

한솔고등학교

< 제안자 >

문희주 강동우 박재영
엄철환 원서연



제안주제 청소년 등.하교 상황 개선



1. 제안하는 내용의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내용 등

최근 버스비 조정으로 청소년의 대중교통 요금이 교통카드 사용의 경우 일반형 버스 기준 870원에서 1,010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고등학생은 대중교통으로 등하교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한 달 평균 22일 등하교를 한다는 가정 하에 버스 요금을 계산해 보면 약 44,440원으로, 이는 요금을 인상하기 전보다 6,000원 이상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들에게 교통비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은 경제적 자립이 힘든 사회적 위치로, 보통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용돈을 받아 쓰는 방식으로 교통비를 충당합니다. 저희는 학생으로서 배정받은 학교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와 관련된 과도한 금전적 부담을 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토대로 '청소년 교통비 지원제'를 고안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상기 내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정책제안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등교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차를 타고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등교 시간이 되면 교문 앞은 등교하는 학생들과 인근에서 통행하는 차들로 인해 붐비고, 안전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학교 앞에 차를 세우는 것이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 안전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교 시 부모님의 차를 잠시 정차할 수 있는 '픽업존'이라는 공간을 지정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보장하려고 합니다.



2.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또는 사업) 내용

현재 경기도가 청소년 교통비 일부를 지역 화폐로 지원해 주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나, 지역 화폐는 지역 내에서의 제한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외부로 갈 일이 많은 청소년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만 18~23세 대상... 버스요금 할인제도도 대폭 확대

(의정부=연합뉴스) 권속희 기자 = 경기도는 만 13~23세 도민이 사용한 실제 교통비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권속희 기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일부 내년부터 지역화폐로 환급'

제안 1. 청소년 교통비 지원제

성남시 예산을 고려하여 예산에 따라 신청자 전원 지원 또는 저소득층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점차 지원 계층을 늘려나갑니다. 지원금액은 현재 교통비의 절반인 22,220원을 제공합니다.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수요일까지 교통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성남시에서 신청자들의 지원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다음 주부터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교통금을 처음 지원받을 때에는 대중교통 이용 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우편으로 한 장씩 발급합니다.

먼저, 온라인 지급 방식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후, 담당 부처 관계자들이 신청 학생들의 교통비 지원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개인 교통카드에 잔액을 충전 할 수 있는 핀 번호를 알려주어 직접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각 학교 행정실에서 지원서를 써서 제출합니다. 이후, 학교에서 지원 대상자들의 신청서를 모아서 시청에 제출합니다. 교통비 지원을 받게 된다면 담임 선생님을 통하여 지원 사실을 알립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서 예시]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 주소 : 생년월일 : 년 월 학교 :
대중교통	이용 교통수단 : 출발역 : 환승역 : 도착역 :
본인은 성남시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교통비 지원금을 오직 등,하교 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안 2. 픽업존

현재 부모님들의 자가용을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문 앞 20m이상 떨어진 곳에 차량을 정차하도록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교문 앞 20m이상 떨어진 곳에 자가용 정차 공간을 정하고 해당 구역에서만 학생들을 태우고,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등하교 시 차를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의무적으로 만들게 합니다. 저희 팀은 이를 '픽업존'으로 이름 지었습니다.



3.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의 기대효과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하는 경우 한 달 교통비로 지출되는 비용은 44,440원입니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교통비 지출을 더 하게 되면 매달 50,000원에 달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한 학생들을 포함한 학생들 모두가 짊어지는 교통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선택 시기에 다양한 판단 기준을 두고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때론 자신이 선택하고 싶은 학교가 있어도, 통학 거리와 통학을 하는데 지출하게 될 교통 요금으로 인해 고민하다 자신이 원하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고등학교 선택 시기에 있는 학생들(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 할 때 선택의 폭을 넓혀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진학 이후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 요금 지출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부모님의 자가용을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등교 시간인 45분 즈음이면 교문 앞이 부모님들의 자가용으로 혼잡해지고 버스 정거장과 학교의 위치가 가까운 학교는 버스와 부모님들의 자가용과의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의 교통비에 대한 부담감은 감소하고 자동적으로 학생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인 '픽업 존'에 관한 기대효과입니다. 부모님들의 자가용을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로 인하여 등교를 앞둔 시간에는 학교 앞이 부모님들의 자가용으로 혼잡해질 때가 많습니다. 학교에 따라 버스 정거장과 학교가 근접해 위치하여 있는 경우는 버스와 자가용과의 위험한 상황이 잦게 발생합니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픽업존을 성남시에서 지정하여 부모님들이 픽업존에 정차하여 학생들을 내려주도록 하면,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간의 접촉 사고 또한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선거 소음 규제 권고 지침

기쁜해



< 소속기관 >

운중고등학교

< 제안자 >

박서현 조하정 윤도연 허민영



제안 주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선거 소음 규제 권고 지침



1. 제안하는 내용의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내용 등

제안 배경

'뽐바스틱', '우루사 CM송' 등은 선거송으로 더 잘 알려진 노래들이다. 학생이라면 이렇게 현란한 노래들을 수업 도중 들어본 경험이 적어도 한 번은 있을 것이다. 특히, 학교 일과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40분(성남시 고등학교 기준) 중 5교시가 시작될 즈음에 체감상 느끼는 선거 소음은 가장 크다. 2016년 지방 선거 때 학교 일과 중과 일과 후의 시끄러운 선거 소음으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와 성남시청에 연락을 취했던 경험이 있다. 학생임을 미리 밝힌 것이 문제였는지 돌아온 대답은 선거 소음에 대한 별다른 규제 방법은 없으며, 그래도 선거 소음이 불편하다면 각 선거사무소에 직접 연락을 취해보라는 것이었다.

2016년 경찰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선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전국에서 경찰이 접수한 유세 소음 관련 신고는 2천 143건으로 하루 평균 535건꼴이라고 하며, 이는 4년 사이 2배나 급증한 수치이다.

현행 선거법상, 유세 장소에서 연설 시 확성기 사용에 있어서 확성기의 크기와 개수만 규제하고 있을 뿐 선거 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방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데모나 집회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광장과 상가 주변 소음은 주간(해 뜬 후~해 지기 전) 75데시벨을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어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나, 선거 유세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집시법 시행령과 같이 이를 단속할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형 확성기를 동원한 선거운동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 휴대폰 마이크를 비롯한 소형 확성장치만 사용할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학생들의 학교 일과 시간과는 무관하게 규제가 되어있으며, 모의고사 당일에도 예외는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한계

선거운동에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제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에서 공개장소의 연설이나 대담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만 규제되고 있으며, 이는 성남시 소재 고등학교 일과 시간인 오전 9시~오후 4시 40분이 온전히 포함된 시간이다.

더불어 연설 및 대담 시 사용 가능한 확장장치의 개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시도지사 후보의 경우 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 지역구지방의회 의원선거 및 자치 구시군의 장 선거는 후보자마다 1대로서 규제하고 있는데, 확장기의 개수 이외에 소음에 관련한 특별한 규제는 보이지 않는다. 제80조(연설 금지장소)에서 학교를 포함한 공원, 문화원, 주민회관, 도로변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관해서는 연설 대담에 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 제한)에 의하면, 연설 대담장소 이외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장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제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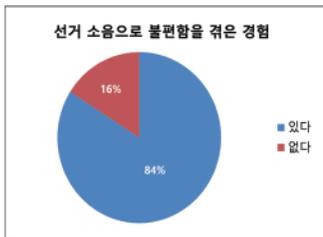
하지만 학교는 연설 및 대담 금지 장소에 포함되지 않기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 방해에 관해서는 실질적인 규제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문 조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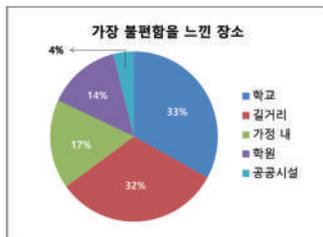
이에 선거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적, 공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느껴 성남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규제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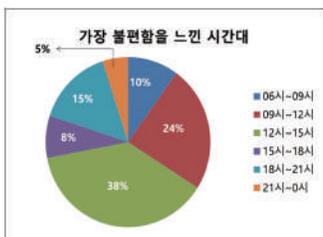
설문조사 진행과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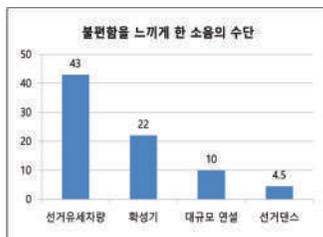
[표1-선거소음으로 불편함을 겪은 경험]



[표2-가장 불편함을 느낀 장소]



[표3-가장 불편함을 느낀 시간대]



[표4-불편함을 느끼게 한 소음의 수단]

1. 불편함을 겪은 경험/장소

선거운동으로 유발된 소음으로 불편함을 겪었다고 답한 학생은 설문 대상자 중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학생들이 선거유세 소음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느낀 장소 중에서는 학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길거리 및 가정 내가 뒤를 이었다.

2. 선거운동 소음으로 인해 가장 불편함을 느낀 시간대

학생들의 불만이 가장 많았던 시간대로는 학교 오후 일과가 시작되는 시간인 12~15시 사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3. 가장 선거소음에 영향을 많이 미친 수단

학생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선거소음 유발원인은 선거유세차량이 압도적이었고, 확장기가 뒤를 이었다. 선거 유세차량에서 흘러나오는 로고송의 소리가 오후일과시간의 수업 집중도를 가장 흐트렸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2.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또는 사업) 내용

제안 배경

성남시에는 초, 중, 고등학교를 합쳐 약 1,262개의 학교가 있으며 그 중 고등학교는 약 276개이다. 한 학교의 전교생을 약 800명으로 가정했을 때, 약 17만 명의 학생이 성남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다. 타 지역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성남시의 특성상 학구열이 높은 지역이 많으며 이에 따라 학원가가 즐비하고 있다. 성남시 학원 수(국어, 영어, 수학 과목 한정)는 대략 2160개 정도이며 이는 성남시에 인접한 안양시의 학원 수 약 1470개와 비교했을 때 약 1.5배 많은 수치이다. 이러한 수치로 보아 성남시에 선거운동 소음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제안 정책

제 21대 총선을 약 6개월가량 앞둔 지금, 청소년들의 학습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공직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따르므로, 사회참여 봉사 동아리 '기쁨해'는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지금까지 제기된 선거 소음 문제를 바탕으로 성남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선거 사무소에 다음과 같은 내용에 따라 권고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대상: 각 정당별 선거 사무소

목적: 성남시는 성남시 내 선거관리위원회(분당구 선거관리 위원회, 수정구 선거관리 위원회, 중원구 선거관리 위원회, 총 3곳)와의 연계를 통해 성남시 내 선거 소음 규제에 관한 권고 지침을 마련하고 보급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미래의 유권자가 느끼는 선거제도의 불편과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성남시 내 선거 소음 규제에 관한 권고 지침]

제 1조 (목적)

위 지침은 선거 기간 과도한 소음과 그에 대한 미흡한 제재로 발생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하여 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권고함으로써 학생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위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선거소음'이란 선거운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소음을 총칭한다.
- 2) '학원가'란 임의로 지정한 100m 구간 이내에 학원이 10개 이상 되는 구역을 말한다.
- 3) '선거'란 '국회의원 선거'를 지칭한다.
-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제시된 모든 학교를 총칭한다.

제 3조 (범위)

1. 소음이 미치는 장소 범위에 대한 것

- 1) 학교:학교 근방 직선거리 100m 내에서는 선거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다만] 4월 모의고사 기간(2020년 기준 4월 10일)에는 학교 근방 직선거리 50m내에서 선거소음이 발생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 2) 학원가:학원가에서 선거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다만] '학원가'의 설정 범위는 제 2조(정의)에 따른다.

2. 소음 크기에 관한 것

현행되는 선거 소음에 관련된 규제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고려하고, 선거 운동 중 발생하는 선거 소음이 집회 및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특성이 유사함을 고려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술되어있는 소음 규제 정도를 바탕으로 기준을 정하여 규제한다.

***확성기등의 소음 기준(집시법 시행령)**

- ㄱ.주간-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65dB 이하
- ㄴ.주간-그 밖의 지역-----75dB 이하
- ㄷ.야간-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60dB 이하
- ㄹ.야간-그 밖의 지역-----65dB 이하

***확성기등의 소음 기준(권고안)**

- ㄱ.주간-학교 및 공공도서관-----65dB 이하
- ㄴ.야간-학교 및 공공도서관-----60dB 이하
- ㄷ.야간-학원가 또는 그 밖의 지역-----65dB 이하

3. 소음 규제 시간에 관한 것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이 가장 많은 불편함을 느끼는 시간대를 피하도록 조정한다. ([표3] 참조)
다음과 같은 시간은 명함을 돌리는 행위와 같이 소음을 유발하지 않는 선거운동만 가능하도록 한다.

- 1) 학교 근방 100m 이내
 - ㄱ.초등학교 - 오전 9시~오후 12시
 - ㄴ.중학교 - 오전 9시~오후 1시, 오후 2시~오후 4시
 - ㄷ.고등학교 - 오전 9시~오후 1시, 오후 2시~오후 5시
- 2) 학원가 - 저녁 8시 이후

4. 선거 소음 발생 원인에 관한 것

- 1) 확성장치
 - 학생들의 학교 일과시간, 학원가 근처에서 8시 이후에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 [다만] 제3조 3항 1)에서 오전 9시~오후 4시에는 제 3조 2항의 측정기준에 반하지 않는 한 일부 허용한다.
- 2) 선거유세차량
 - 공직선거법 제 91조에 명시된 '자동차의 사용' 등의 조항을 확실히 따를 것을 권고한다.
 - 학생들의 학교 일과시간, 학원가 근처에서 8시 이후에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 [다만] 제3조 3항 1)에서 오전 9시~오후 12시에는 제 3조 2항의 측정기준에 반하지 않는 한 일부 허용한다.
- 3) 대규모 연설
 - 학생들의 학교 일과시간, 학원가 근처에서 8시 이후에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성남시 선거관리 위원회의 역할

- 학생들의 학습권 존중을 1순위로 한다.
- 권고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 교육기관 별 소음 저감 장치 설치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 학생들을 건강한 유권자로 성장시키기 위해 선거소음으로 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남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역할

- 시의 권고 지침에 자발적으로 응한다.
- 학생들도 미래 유권자임을 직시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
- 후보자들의 당선 당락은 유권자들이 결정에 달려있음을 인지하고, 유권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3.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의 기대효과

현재 공직선거법 제 80조, 그리고 제 91조 등으로 대략적인 선거운동 불가 장소나 선거운동의 수단에 대한 제재는 가해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소음에 관한부분은 구체적인 규정으로 규제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선거운동기간에 선거 후보자들은 선거유세차량과 확성기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선거 기간만 되면 학생들의 선거소음이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가 되어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남시 내 선거 소음 규제에 관한 권고 지침'을 시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다.

1.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다.

후보자들에게 위 권고지침을 내리고 이후 실제 선거운동 과정 중 이 권고를 통해 선거 소음이 감소한다면 학생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소음으로 인한 집중력 분산을 막고 학습 효율을 높여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실제로, 2002년 캐나다 국제 카운실(Canada National Council) 연구팀은 동일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소음이 있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930초가 걸린 반면 소음이 차단된 환경에서는 그 시간이 750초로 대폭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이렇듯 소음은 학습과제 수행의 효율성에 큰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서현동정자동 부근은 학원이 높은 비율로 분포하며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권고지침으로 선거운동 시간대와 데시벨에 제약을 둬서 학교일과 시간 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는 4월에 실시되어 학생들의 중간고사 기간과(중,고등학교 기준) 그 시기가 항상 겹치게 되는데, 제시한 권고지침을 활용하면 소음으로 발생하는 학업 방해를 최소화하여 학생들의 진로를 위한 학습활동에 소음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2. 미래 유권자인 학생들의 정치 거부감을 방지하여 정치참여의 초석을 다진다.

청소년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동등한 정치적 권리 행사 주체임과 동시에 이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미래의 유권자들이다. 선거 소음은 정치적 부패와 더불어 정치에 대한 거부감을 유발하는 하나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데, 위 권고안을 통해 선거 소음을 적절히 규제한다면 무조건적인 거부감 촉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혐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효능감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 또는 기대감'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 효능감이란 유권자가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을 의미한다. 어려서부터 체득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이후 성인이 되어 선거권을 가지고 투표에 임할 때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태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어 정치 효능감을 향상시킬 것이다.





청소년 성교육 활성화 방안 : 성남시는 곧 성(性)지가 됩니다.

꿈나르샤



< 소속기관 >

중원청소년수련관

< 제안자 >

고수정 최우창 김선중 안홍균 김나영
지소영 박창준 윤성민 권나리



제안주제

청소년 성교육 활성화 방안 : 성남시는 곧 성(性)지가 됩니다.



1. 제안하는 내용의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내용 등

2018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통계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첫 성경험의 평균 나이는 13.6세로, 2012년 15.1세 보다 1.5세 정도 앞당겨졌다. 이렇듯 첫 성경험 나이가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피임률은 59.3%로 미국 청소년들의 피임률이 99% 라는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낮은 피임 실천율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기인한다.

첫째, 학교에서 진행되는 주입식 성교육. 일반적으로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는 성교육은 자료화면을 통해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신체 기관 차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의사표현 방법 등의 형식적인 내용만 언급한다. 피임이나 올바른 성행위를 위한 방법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은 부족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 성교육 수요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학생들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필요로 하는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처럼 형식적인 교육은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임신 및 성병 위험 등을 초래하고 있다.

둘째, 구체적인 성교육 표준안 부재. 2015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성교육 표준안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재개편 입장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성교육 관련 표준안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교육은 가장 보편적인 내용을 진행하고 있어 이미 청소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유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대한민국은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특히 부모들은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것을 금기시 하듯 하여, 가정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청소년들은 올바른 성 이해도가 현저하게 낮은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음란물을 통해 잘못된 성지식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피임기구를 구매하는 것마저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안전한 성생활을 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임신, 성병 등의 문제는 지금의 성교육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단순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교육 횟수만을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올바른 성지식을 가지고 건전한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지도자에 대한 성교육도 진행함으로써 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부끄럽고 꺼리는 내용이 아닌, 청소년들에게 매우 필요한 지식임을 일깨워야 한다.

2.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또는 사업) 내용

올바른 성교육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제안하는 정책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삼성(三性)프로젝트 - 성(性)남용, 성(城)남형, 성(性)교육'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뜻을 내포한다. 1) '성(性)남용' 자신의 '성'을 남용하지 않도록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2) '성(城)남형' 성남형교육을 통하여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생까지의 각각의 단계에서 3) '성(性)교육' 표준화된 성교육을 진행하여 올바른 성 지식 및 인식개선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지도자까지의 4가지 단계별 교육이 진행된다.

1.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신체구조 등과 관련된 '성의 기본지식'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성의 기본지식에서는 남성 및 여성 각각의 신체구조와 각각의 성에 맞춘 '몽정'과 '생리'와 같은 특성을 교육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성별 간의 신체적 차이점을 인지하는 것이다. 남녀는 단순히 생식기 구조만 다른 게 아니라 심장, 두뇌, 뼈, 피부, 침, 등 장기, 부속물, 분비물에서도 뚜렷한 생물학적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여 남녀 차별이 아닌 '다름'을 이해해야 한다.

2. 중학교 단계에서는 '성관계 및 성 남용의 위험성', '성 인식 역사 및 고정관념 탈피'에 대하여 교육한다. 1) 성관계 및 성 남용의 위험성은 성관계란 무엇이고, 이를 통해 어떤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배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관계 시 쾌락을 느껴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헤르페스'와 '곤지름' 등의 성병에 걸릴 수 있고, 이는 상대방에게 전염될 수도 있어 남녀 모두 조심해야 할 문제라는 것 등의 내용들을 교육한다. 2) 성 인식 역사 및 고정관념 탈피에서는 시대 변화에 따른 '성적 특성'과 '성 관계'에 관련한 인식 변화와 '성 소수자'를 배움으로써 성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성 소수자나 페미니즘 등의 올바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지도한다.

3.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성 관련 체험교육'과 '성 및 청소년 성문화센터 관련 토론'을 진행한다. 본 단계에서는 성관계와 관련한 것들을 체험을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 성 및 성문화센터에 관하여 청소년들 간의 토론을 통해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성 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성'을 이해하는 단계이다. 1) 성 관련 체험교육에는 남녀 모두 '콘돔 착용해보기', '임산부체험', '아이 돌보기' 등의 실천형 교육이 포함된다. 2) 성 및 청소년 성문화센터 관련 토론은 청소년들의 성관계를 잘못된 것으로만 바라보는 '청소년 성관계 억압'과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문제점 혹은 개선점' 등과 같은 사안에 관하여 토론을 해보며 자신뿐만 아니라 급우도 인식개선을 하도록 도와주는 교육방법이다. 특히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건강한 성 가치관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확립하도록 지원하는 기관인데, 기관의 수가 적고, 기관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청소년들도 있어, 이를 토론을 통하여 논의하는 것에도 큰 의의가 있다.

둘째, '청소년 성(性)포터즈'를 통한 건강한 성문화를 형성을 제안한다. 청소년 성(性)포터즈란,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대표하여 청소년의 관점에서 바라본 성이 성남의 성교육,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교육, 청소년 성문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청소년으로 구성된 '서포터즈(supporters)'를 의미한다. 청소년 성(性)포터즈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성교육의 대상자인 청소년이 그들의 관점에서 직접 성교육에 참여. 현재 성남시에 있는 학교들이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빠르게 변화하는 성문화 패러다임에 맞는 교육을 전달하고 있는지,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성(性)포터즈는 청소년을 대표하여, 현재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와 성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을 통해 직접 성교육의 내용에 참여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2. 당당하게 자신의 성 및 사회적 젠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형성. 최근 페미니즘, 스쿨 미투(Me-Too) 등 자신이 가지는 성에 대한 개념과 성 평등, 젠더 이슈에 대해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유롭게 청소년들이 이야기를 꺼내기는 쉽지 않다. 이를 위해, 성(性)포터즈는 사회적 젠더 이슈, 교내 성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청소년 성문화를 그들이 구축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활동을 진행한다.

이와 같은 목적의 청소년 성(性)포터즈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한다.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교육과 관련하여 토론 등의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성포터즈의 청소년들이 직접 성교육 자료의 제작에 참여. 만들어낸 교육 자료 앞서 언급한 '삼성(三性)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검수를 거쳐 학교에서의 성교육 자료로 이용한다.

2)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 매체 '유튜브(YOUTUBE)'를 활용한 성 관련 콘텐츠 제작.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영상으로 성과 관련된 정보들을 제작하여 성남시의 학생들을 비롯한 전 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도록 게시한다. 제작하는 영상의 주제는 성포터즈가 회의를 통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작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의 예시로는, '성문고(가칭)'가 있다. 청소년 성(性)포터즈의 활동은, 모든 청소년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때에 다시 볼 수 있는 교육 매체를 제작한다는 점에서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또래 청소년들이 제작에 참여한 자료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성남시'는 성(性)포터즈를 통해 타 지역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성 인식 확립을 위한 성남시 소재 청소년수련관 주관의 '청소년 성(性)캠프'와 '성(性) 토론대회'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청소년 성(性)캠프'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될 1박 2일 캠프로, 대회의 목적은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 개선에 있다.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 순서로 진행된다. 1) '성범죄 예방 교육'.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범죄 발생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그 연령대 또한 낮아짐에 따라 청소년 성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삼성(三性) 프로젝트' 교육 자료에 근거한 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2) '피임 교육'. 게임과 체험의 방식을 통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피임 도구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피임의 중요성과 더불어 책임감을 느낄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3) '젠더 교육'. 최근 젠더 관련 이슈는 뜨거운 감자이다. 젠더 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다루는 남녀평등, 성 소수자 등의 이슈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젠더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 성(性) 캠프'는 중/고등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이수증 증정 및 성남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증정 등을 통해 참여율을 높일 예정이다.

2. '성(性) 토론회'. 대회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성 가치에 대해 능동적으로 고민해볼 기회를 주고자 함이다. 토론회는 성남시 소재 청소년수련관 성(性) 캠프 활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리고 성남시 소재 학교에서 교내대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토론회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선정한다. 1) 성교육 교과목화, 학교 내 콘돔 자판기 설치 찬반 등 '성(性)지 프로젝트'와 관련한 청소년의 성교육 관련 주제이다. 2) 청소년기 음란물 접근, 동성결혼 합법화, 젠더 갈등과 같이 최근 떠오르는 사회적 이슈이다. 예선과 본선 주제로 각각 성교육 관련 주제와 성 관련 사회적 이슈로 분배하여 청소년들이 미시적, 거시적 관점에서 성에 대해 고찰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 관련 주제에 대해 직접 고민해보고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회를 다각도로 바라보며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교육자들은 토론을 참관하고 청소년들과 소통하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여론을 피드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성교육이 필요한지 체감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삼성(三性) 프로젝트' 교육 자료와 '성(性)포터즈', '성(性) 캠프'의 교육 내용을 보강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것이다.

3.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의 기대효과

01 '삼성(三性) 프로젝트 - 성(性)남용, 성(城)남용, 성(性)교육'

-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성지식을 이해시켜 자신의 성 발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 지도자 교육을 통해 학교 및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여 성교육 지원 능력을 함양.
- 학교와 가정, 사회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교육 효과를 증대.

02 '청소년 성(性)포터즈'

- 각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책 제작으로 지역 내의 청소년 성교육 질적 향상.
- 성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성교육에 대한 만족도 향상 도모
- 건전한 성문화 인식 형성
- 청소년 피임을 향상



03 '청소년 성(性)캠프'와 '성(性) 토론회'

- 이론 중심이 아닌 활동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여 프로그램 질 및 만족도 향상 도모
- 우리나라의 성교육 현실과 문제점을 토론을 통해 발견하여 청소년 스스로가 발전 방안과 대안을 제안

* 출처

1. 질병관리본부·교육부·보건복지부, 「제 1414차 청소년 건강형태조사」, https://www.cdc.go.kr/yhs/home.jsp?id=m03_02, 2018.12.21
2. 조영주 외, 「청소년 성교육 수요조사 연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우리 같이 건너요 안전한 횡단보도

별다래



< 소속기관 >

수정청소년수련관

< 제안자 >

이주원 우선민 최주현 최윤희 장세정
문서영 원 진 주수원 김상민 김민준



제안주제

우리 같이 건너요 안전한 횡단보도



1. 제안하는 내용의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내용 등

스마트폰 사용을 이유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길을 건너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서 스마트폰과 줌비를 합친 '스몸비족'이라는 합성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해 걸음이 느리고 주위를 살피지 않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줌비에 빚대었으며, 무의식중에 스마트폰만 쳐다보다 미처 달려오는 차를 피하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스몸비족 사고 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LED 바닥 신호등'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설치 되어있는 곳이 한정적이라는 점과 낮과 밤의 밝기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볼라드'를 설치하여 바닥 신호등의 한계점을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안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뒷받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한 횡단보도 불안 불안한 스마트폰 사용자

수많은 차량이 지나가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조차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걸읍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와 주변 보행자의 안전에 위험이 가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데다 처벌 등 법적 규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지니고 있는 이동성으로 인해 성인은 물론, 청소년과 아동에 이르렀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교통사고로는,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수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광화문 사거리 보행자 가운데 33%가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객사고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3년 117건에서 2017년 177건으로 5년 새 51.3%가량 늘어났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2009년에는 437건, 2015년에는 1360건으로 3.1배 증가했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차량 사고를 당한 사례는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 교통사고로는, 중국은 2015년 6월, 스마트폰으로 채팅을 하면서 걷던 여성이 빗물 배수관 덮개에 다리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독일에서는 2016년 2월, 열차신호제어 담당자가 휴대전화 게임에 정신이 팔려 11명이 사망하고 80여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 아이들의 등하굣길에서 바쁘게 오가면서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사람들, 횡단보도에서 건너는 도중에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다가 차량과 충돌할 뻔한 순간까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시야 확보거리 축소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보통의 경우 사람들의 시야각도는 120~150도인데 반해, 핸드폰을 사용하는 경우 10~20도가 줄어 듭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 이수일은 스마트폰 사용 시 시야 폭이 56%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2. 소리인지 속도 감소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한 실험에서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평균적으로 14.4m 내의 소리를 인지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는 인지거리가 급격히 줄었으며 15%의 참가자는 5m 내의 소리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수일 박사는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주변 소리에 대한 인지거리가 50% 이상 감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 현재 LED 바닥 신호등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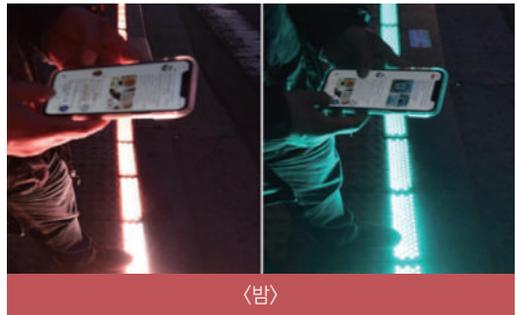
스마트폰으로 인해 보행자가 횡단보도 신호에 집중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LED바닥 신호등을 추가해 추진 할 것으로 밝힌 정부는 현재 오산시, 대전 서구, 서울 서초구에 설치하였습니다. 바닥 신호등은 기존 보행 신호등과 같이 횡단보도 전방에 표출되며, 보행신호가 바뀔 때 같은 색으로 바뀌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도로에 설치하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생기고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스몸비족의 횡단보도 교통 사고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몸비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밤에는 환하지만 낮에는 희미한 LED

바로 낮과 밤의 밝기 차이입니다. 바닥 신호등은 밤에는 스마트폰의 밝기보다 불빛이 훨씬 밝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창한 낮에는 햇빛에 가려져 불빛을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아래로 쏠린 시선을 고려하여 바닥에 설치된 신호등이 낮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낮에 바닥 신호등이 설치된 서울 세종대로의 횡단보도 앞에서 길 건너 보행등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1~2m 앞바닥 신호등의 불빛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낮〉



〈밤〉

2-2. 설치가 한정된 LED 바닥 신호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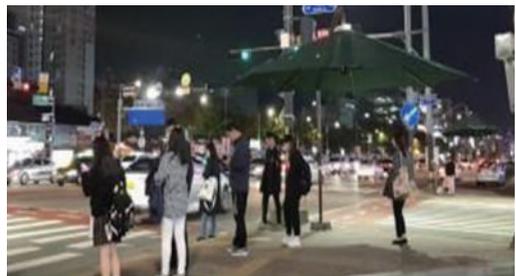
바닥 신호등의 설치비용은 보행신호등에 비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공비만 약 2천여 만원에 달하며 유지에 드는 비용도 적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이유로 바닥 신호등을 전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설치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별다래 현장 조사결과〉 ※2019년 10월 16일~17일 성남시 내 횡단보도 2곳 조사

1. 분당구 고등학교 앞 횡단보도 10월 16일 오전 8시 30분 약 20명 학생 대상 조사 결과 2명을 제외한 18명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기까지 약 3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였고, 실제 건널 때도 사용하는 학생은 11명이었습니다. 즉 90% 학생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였으며, 55% 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였습니다.
2. 수정구 신흥역 앞 사거리 횡단보도 10월 17일 19시 30분 약 31명의 청소년 및 성인 대상 조사 결과 8명을 제외한 23명은 신호가 바뀌기까지 약 2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였고, 실제 건널 때 사용하는 청소년 및 성인은 10명이었습니다. 즉 74%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32%의 사람들이 건널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였습니다.



분당구 청솔마을 사거리 10. 16. 8:30



수정구 신흥역 사거리 10. 17. 19:30



2.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또는 사업) 내용

1. 밤과 낮에 조명강도를 자동 조절한 스마트 LED바닥 신호등 설치

보행자들이 고개를 숙여도 횡단보도임을 알 수 있도록 보행자 대기선에 LED를 설치하여 신호등과 연동, 신호에 따라 불빛의 색상이 바뀌어 멀리서 봐도 횡단보도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밤과 낮에 조명강도를 자동으로 조절하여 가시성을 높이고, 예산사용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보행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걷다가도 LED의 색상이 빨간불이면 멈출 수 있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국내에 도입된 LED바닥 신호등은 규격이 작고, 조명강도가 약합니다. 무분별한 설치를 막고자 성남시는 규격, 조명강도, 설치지역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LED 바닥 신호등은 효율 있게 개선한 후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최근 9월 11일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킨존에서 9살 김민식 군이 SUV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제한, 과속카메라 설치가 되어있지만 발생한 안전사고입니다. 학교 및 어린이집 주변 우선 설치하여 스킨존 안전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중국의 스마트 LED바닥 신호등(중국 인민일보)



네덜란드 회사 라이이트 제브라 크로싱

해외사례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중국, 네덜란드, 독일, 호주, 싱가포르 등은 이미 스마트LED 바닥신호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같은 모양·기능은 아니어도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몸비족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그에 맞는 안전대책을 강구 해야합니다.

2. 새롭게 개선된 볼라드 설치 제안

볼라드(bollard)란?

차량 진입방지용 말뚝으로 차량이 인도를 진입하거나, 인도에 불법 주정차를 못하게 설치, 현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높이 80~100cm, 지름10~20cm, 간격 1.5m 내외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말뚝으로부터 30cm 앞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볼라드에 신호등을 달아 낮에 잘 보이지 않는 바닥 신호등의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개선합니다. 2-1에 언급한대로 바닥 신호등은 화창한 낮에 햇빛에 가려져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볼라드에 신호를 설치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볼라드에는 발광 스키타이프가 부착되어있어 야간에 볼라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차량이 야간에 볼라드의 위치를 파악하기 힘든 밝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개선된 볼라드 설치를 제안 합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볼라드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 하였습니다.>

- 신호등과 똑같은 신호를 볼라드에 설치
- LED신호를 이용해 차량이 밤 중에 볼라드 위치 인지 기능 추가

3.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의 기대효과

1. 성남시 관내 학교 앞 스쿨존 안전사고 예방 및 방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걷는 스몸비족들 중 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설치 예산 편성도 매우 중요하나 성남시의 안전대책은 최우선으로 잡아야 합니다. 스쿨존 사고를 예방을 위해 성남시는 최선의 노력을 하여 안전한 성남시를 만드는 데 한걸음 더 다가 가야 합니다.

2. 효율적인 블라드 설치 및 스마트LED 횡단보도 설치로 교통환경 변화 및 개선

최근 국토부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보행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주변에 급히 달려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를 활용하여 삼성전자와 함께 단말기에 설치, 보행자가 실시간으로 운행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융합사회는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융합된 시스템은 다양하게 개발되어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효율적인 스마트 블라드 개발 및 설치, 보급으로 스마트한 미래의 성남시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및 시민이 24시간 안전한 성남시를 구축

나아가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 및 시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못하게 차단하는 것은 미시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전을 할 때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안전문제에서는 모두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통해 모두가 24시간 안전한 성남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제9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아이디어를
입력하세요
WWW
here hat hy



성남만의 일석사조 공병보증금 반환!

꿈드림청소년단 '드림윙즈'



< 소속기관 >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제안자 >

임서연 이지민 김희주
박용희 김재운



제안주제 성남만의 일석사조 공병보증금 반환!



1. 제안하는 내용의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내용 등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불(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해 주는 제도인 '빈용기 보증금제도'와 '공병보증금 반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병을 회수하는 회수처에서는 공병을 수거하게 되면 공간 자리부족으로 하루에 반환할 수 있는 제한이 있고, 회수처의 공병 수거 거부로 소비자는 고작 몇백원에 목숨을 거는 '잔돌이'가 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다른 회수처를 가보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공병을 반환할 곳이 마땅치 않고, 다른 곳에서도 이곳에서 산 상품이 맞냐며 영수증까지 확인하려합니다.

'공병 반환 보증금 제도' 소비자·소매점 모두 불편

양병웅 기자 / 2019.05.09.19:11

소주·맥주병 등을 슈퍼마켓이나 마트에 가져다 주면 보증금을 되돌려받는 '공병 반환 보증금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유리병 재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월부터 공병 보증금을 대폭 올리리기까지 했지만 여전히 걸돌고 있다. 9일 환경부가 시행 중인 공병 반환 보증금 제도에 따르면 소비자가 빈 맥주병(130원)이나 소주병(100원)을 가져올 경우 슈퍼나 마트에서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불토록 하고 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받게 된다. 그러나 전주지역 일부 슈퍼마켓과 소규모 마트에서는 공병 회수에 제한적이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소비자들이 불만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전주시 인후동 신모(41)씨는 "최근 동네마트에서 공병 수거를 거부해 다시 집으로 가져와야 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처럼 공병 회수에 동네 마트나 슈퍼들이 미온적인 것은 정부의 공병 반환 보증금 제도가 소비자에게는 이익이지만 수거하는 매장 입장에서는 이렇다 할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병 수거로 인해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 슈퍼와 마트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빈 맥주병이나 소주병 1병을 수거하면 슈퍼나 마트에는 사실상 남는 게 없다는 점도 업주들의 이구동성이다. 공병 1개에 10원 정도가 남지만 보관을 위한 장소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염된 공병이 섞여서 올 경우 악취로 인해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 전주 시내 한 마트 직원은 "보증금을 현금으로 줘야하지만 맥주나 소주를 손님이 카드로 구매했을 경우 수수료를 떼면 사실상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공병 반환 보증금 제도의 맹점이 자원 재활용을 높ی겠다는 정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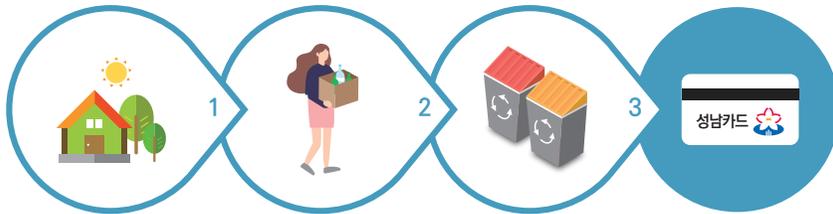
2.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또는 사업) 내용

공병 반환 보증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회수시 소비자와 회수처 모두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점이다. 소비자는 무거운 병을 들고 회수처 까지 가야하고, 회수처의 잦은 거절로 기분이 상할뿐만 아니라 무거운 병을 들고 다니는게 번거로워 하고 싶지 않아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병회수기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독일에서는 공병 수거제도인 '판트'를 운영하고, 공병 회수기를 마트 곳곳에 설치해서 마트 내 공병회수기에 공병을 넣으면 그에 따른 금액을 쿠폰으로 발행해 마트에서 결제 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쉽게 반환할 수 있어 지나가던 행인들도 공병을 주워가기도 한다.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의 내용으로는 지역 내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회수하는 기계나 의류수거함과 마찬가지로 그 옆에 공병무인회수기를 설치한다면 소비자도 쉽게 공병을 반환하고, 회수처도 번거롭지 않으며, 회수과정에서 파손을 막아 환경도 지킬 뿐만 아니라 성남시의 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약정리 >>



1. 지역 내 곳곳에 공병무인회수기를 설치한다.
2. 소비자는 집 근처에 있는 공병무인회수기에 소비자가 쉽게 공병을 반환한다.
3. 공병회수기에 병을 넣고, 반환한 병에 해당하는 비용을 성남카드에 마일리지로 받는다.
4. 마일리지는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한다.

3.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사업) 의 기대효과

<소비자측면>

- 멀리가지 않고 쉽게 집 근처 공병무인회수기에 공병 반환할 수 있음
- 공병수거금의 수입이 발생함

<회수처측면>

- 공병수거 업무의 부담감이 줄음
- 공병보관을 하지 않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며, 쾌적하고 넓은 매장을 운영할 수 있음
- 오염된 공병이 섞여 올 경우 악취로 인해 발생한 불편함이 해소 될 수 있음

<성남시 측면>

- 공병회수금의 마일리지 카드적립을 통해 지역 내 경제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음

<환경적 측면>

- 회수과정에서 파손되거나 이물질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재사용률이 떨어지는데 이를 방지하여 재사용률을 높일 수 있음

제9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아이디어를
입력하세요
WWW
here hat hy



청소년증과 학생증 활성화 방안

같이의가치



< 소속기관 >

늘푸른고등학교

< 제안자 >

김하윤 박경민 천우진 이현준
윤성식 이예은 심현비 임다빈

**제안주제** 청소년증과 학생증 활성화 방안**1. 제안하는 내용의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내용 등**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청소년증)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청소년증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도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증의 발급률은 현저히 적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이 도입된 지 16년이나 되었지만 통계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증의 발급률은 10%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 중 청소년증에 대해 들어보았다는 청소년은 19.6%, 들어보지 않았다는 비율은 80.4%로 나타났습니다.

1. 학생증의 문제점

청소년증에 대해 조사하던 중 학생증의 문제점에 대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1) 기능의 차이

성남시에 있는 8개의 고등학교를 조사해 본 결과 체크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학생증도 있는 반면, 도서관 대출의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는 학생증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같은 청소년이라도 학교의 재량에 따라 다른 기능의 학생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2) 법적신분증명 불가

학생증은 학생의 소속 학교를 나타낼 수 있는 기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법적 신분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음의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연 관람을 할 시 학생증은 법적 신분 증명이 불가하여 학생증을 대체하여 여권 등을 가져가야합니다. 또한 은행에서 통장을 발급 할 시에도 학생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여권이나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제한적인 사용범위

대부분의 학생증은 도서관 대출 시 대출증의 기능, 체크카드의 기능 정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대출증의 기능이 있는 학생증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학교뿐이었습니다. 체크카드의 기능이 추가된 학생증도 오직 체크카드의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의 할인 혜택 등을 사용할 수 없어 사용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 청소년증의 할인혜택

현재 청소년증은 박물관, 미술관, 유원지 등을 방문했을 때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단체관람을 제외한 개인적인 관람은 현저히 낮은 방문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소년들이 비교적 많이 이용하지 않는 분야가 아닌 더 많이 이용하는 분야에 혜택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이중 발급

모두가 그렇듯 청소년들 역시 편리하고 효율적인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학생증과 청소년증의 기능이 달라서 학생증을 발급받아도 다양한 청소년 혜택에 받기 위해서는 학생증과는 별도로 청소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직접 행정 복지 센터에 방문하고 수령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2.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또는 사업) 내용

1. 학생증에 청소년증의 혜택들을 PLUS

성남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증이 비슷해져

제안배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증은 각 학교마다 기능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학생증만으로는 법적 신분을 증명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 및 학생증과 청소년증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학생증에 청소년증의 혜택들을 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학생증의 디자인, 기능 등의 결정권은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의 재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 별로 학생증의 기능 차이가 나타나게 되므로 각 학교에 청소년증의 기능이 더해진 통일된 학생증 양식을 배부하여 성남시 관내에 학생들이 모두 같은 기능과 혜택을 가진 학생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사정상 학교를 다니지 않아 학생증을 학교에서 발급 받을 수 없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각 행정구역별 행정복지센터에서 청소년증을 발급 받도록 합니다. 이때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받도록 우편을 발송합니다.

2. 지역 상인회와 청소년증 연계

현재 청소년증은 교통수단, 영화관, 박물관 등에서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식비에서는 할인 혜택이 없어,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상인회와 지방 자치 단체가 협업을 하여 청소년증을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식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지역 상인회 중 '청소년증 가맹점'으로 신청한 가맹점은 학생들의 평가를 받고 그것을 기반으로 6개월 단위마다 우수 가맹점을 선정하여 지자체의 자영업자 지원 예산으로 쓰레기 처리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3. 모바일 청소년증

내년도에 도입될 예정인 정책 중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을 두고 온 경우를 대비하여 '모바일 청소년증 앱'을 만들어 지원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이 '청소년증 가맹점'을 쉽게 찾을 수 있게 '가맹점 확인 지도' 또한 모바일 청소년증 앱에 추가할 것입니다.





3.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의 기대효과

1.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

1) 청소년

지역 상인회에 연계한 가맹점에서 청소년증을 사용하여 식사를 할 경우 청소년들은 식비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계획한 지출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유롭게 소비 지출 패턴을 분석할 수 있게 되며, 또한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지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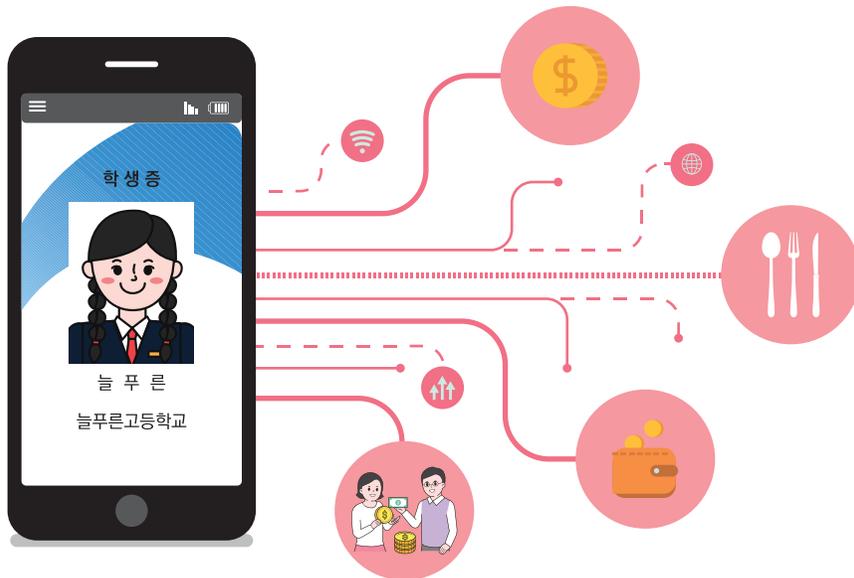
자영업자들은 청소년증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할인 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영업자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적 측면으로 봤을 때 많은 식당들 중 청소년증으로 할인을 해주는 식당을 학생들이 더 선호할 것입니다. 결국 더 많은 손님을 유치할 수 있게 되므로 할인으로 인한 적자보다 손님의 증가로 인한 흑자가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평가로 우수 가맹점을 선정하기 때문에 식당 개발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분야별 예산이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 중 우수 업종에 한하여 쓰레기 처리 부담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예산의 본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증과 청소년증의 이중 발급으로 인한 국가적 재정 낭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청소년증 사용률 증가

현재 청소년증은 행정 복지 센터에 가서 발급 신청을 하면 15~20일 가까이 기다려야합니다. 하지만 모바일 청소년증을 사용하게 된다면 실물 카드가 도착하기 전부터 모바일 앱 카드를 이용하여 청소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물 카드가 도착하기 전에 생기는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증 가맹점을 알려주는 지도를 추가한다면 학생들은 가맹점들을 찾아가며 더욱 적극적으로 청소년증을 이용하는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철권철권! 찍지마세요!

청소년운영위원회 가온누리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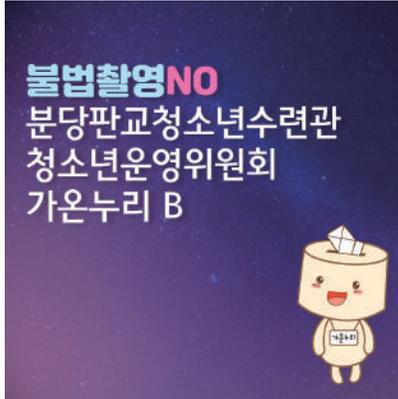


< 소속기관 >

판교청소년수련관

< 제안자 >

김유빈 박다은 장하은 송윤서
김나영 김단영 김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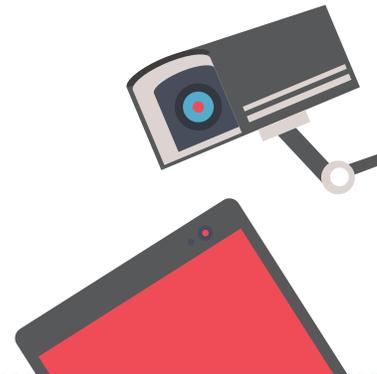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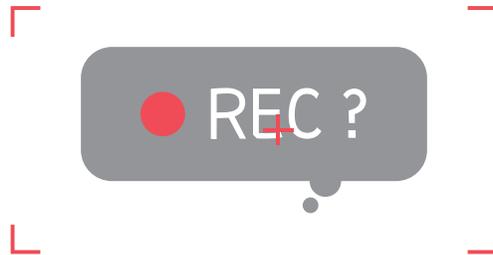
제안주제 **불법촬영 철렁철렁! 찍지마세요!**

1. 제안하는 내용의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내용 등

“그냥요” “재미로 한번 찍었어요” 최근 경기도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여학생을 몰래 찍으려고 시도하다 적발되어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가해자는 고등학생 청소년이 였으며 ‘범죄’ 의식 보다는 큰 죄의식 없이 호기심에서 장난삼아 불법 촬영을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이수역 내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으로 불법촬영을 하다가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현장 적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때 붙잡힌 사람은 초등학교 6학년 이였고 이유는 “그냥”이었습니다. 이렇게 줄지 않는 불법 촬영범죄 실태에서 학교 내 불법촬영 적발 건수가 늘었으며 교육부에 따르면 교내 불법 촬영 사건은 2016년 212건, 2017년 425건으로 늘더니 2018년 8월까지만 343건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 불법 촬영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청소년들의 불법촬영에 대한 심각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디지털 문화, 스마트폰에 워낙 익숙하다보니 범죄라는 인식이 낮아 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이 범죄임을 알려야한다고 청소년운영위원회 가온누리에서는 생각했으며 성남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을 조사했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서 작년 9월부터 불법촬영 없는 안심거리 ‘빨간원 캠페인’을 동참하던 학생들이 올해 5월부터 상가 밀집 지역 업소에 찾아 캠페인을 알렸습니다. ‘빨간원 참여가게’를 모집한 결과 총 45개의 업소가 ‘빨간원 캠페인’에 동참을 하였고, 이에 복정동 상인들 또한 좋은 취지에 공감하며 총 95개의 업소가 캠페인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단속과 더불어 복정동과 같이 예방을 위한 참여거리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현재 성남시에서 캠페인이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들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불법촬영에 대해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또는 사업) 내용

불법 촬영 걱정 때문에 화장실 갈 때도 불안해서 주변을 살펴보는 경우가 많다는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요즘.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전한 성남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합니다.

- 제안명 : **불법촬영 철경철경! 찍지마세요!**
- 취 지 : 성남시 공공 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및 점검 기기 대여를 통해 지역 상권, 기관이 함께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청소년 대상의 교육을 통해 인식개선을 하고자합니다.

1. 성남시 공공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 충주시 공공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모습

2. 마트, 상가 등에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기기 대여 및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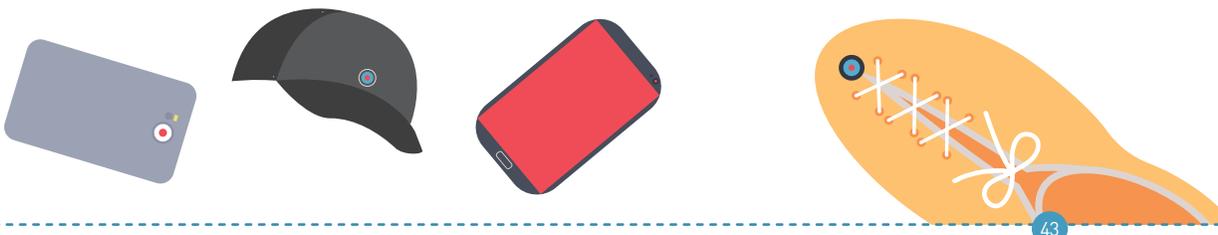
공중위생영업장은 물론 다중이용시설, 민간시설, 단체가 자율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알아보고 찾아낼 수 있도록 점검기기를 대여해주고 사용법을 알려줍니다. 주변 가까운 파출소에서 대여할 수 있으며 사용 완료 후 파출소에서는 확인 후 '불법촬영 안심존' 체크 종이에 인증 날짜와 도장을 찍어주며 상가에서는 '불법촬영 안심존'카드를 화장실에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걸 이용하는 시민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3. 불법촬영은 '몰카'가 아니라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캠페인 운영

캠페인으로는 초중고 대상의 불법촬영 관련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 물론 학교밖 청소년들에게도 교육할 수 있도록 길거리 캠페인도 함께 진행되어야합니다. 불법촬영 외에도 안전교육, 청소년 범죄 관련 교육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나 한번으로 그치는 교육으로만 끝납니다. 지속적으로 학교에서도 관심을 갖고 분기별 교육으로 진행하는게 필요합니다.

3.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사업) 의 기대효과

불법 촬영에 대해 공공화장실 몰래카메라 안심스크린 설치로 인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며 지속적이고 신속한 점검으로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불법촬영이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서 높은 효과가 있을거라 기대합니다. 안전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한 청소년들과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시에서도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9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아이디어를
입력하세요
WWW
here hat hy



생존수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등학생으로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

가온누리



< 소속기관 >

한솔고등학교

< 제안자 >

전은수 전우창 한예슬 조희진

이승호 이성진 박지성



제안주제

생존수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등학생으로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

가온누리



1. 제안하는 내용의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내용 등

I 생존수영 운영의 발전방향과 확대실시를 위한 정책제안 배경

2019년 현재 이시점 생존수영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지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3~4학년 시기에 약 10시간에 걸쳐 영법이 아닌 생존을 위한 수영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상안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 미흡한 점들과 좀 더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이에 저희는 좀 더 발전된 방향의 생존수영 방법개선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II 생존수영 운영의 발전방향과 확대실시를 위한 정책제안 배경

현재 경기도 교육청의 초등학교 생존수영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차시	중점내용
물에 적응하기	2	물과 친해지기
호흡하기	1	호흡법
생존뜨기	3	물에서 뜨기
잠수하기	1	잠수하기
체온 유지하기	1	체온 유지법
이동하기	1	이동하기
평가하기	1	평가하기
계	10	

수업목표

- 위기 상황에서 생명보호가 가능하도록 영법에 상관없이 10m 수영하기
- 하위목표 1 : 부력을 가진 생존도구 이용하여 10m이상 수영하기
- 하위목표 2 : 10초간 물에 떠있기
- 하위목표 3 : 수심1m 잠수하여 눈뜨고 물건 찾아오기

위 계획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첫째**, 현재 우리나라 교육에서 생존수영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에 국한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생존수영을 실제 진행하는 시간은 연간 4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셋째**, 짧은시간에 습득하기 어렵다 보니 사교육을 통해 수업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상황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넷째**,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보니 현재 1시간 수업기준(40분수업)으로 한 개 반당 5만원 이하로 강사비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 인원수와 상관없이 5만원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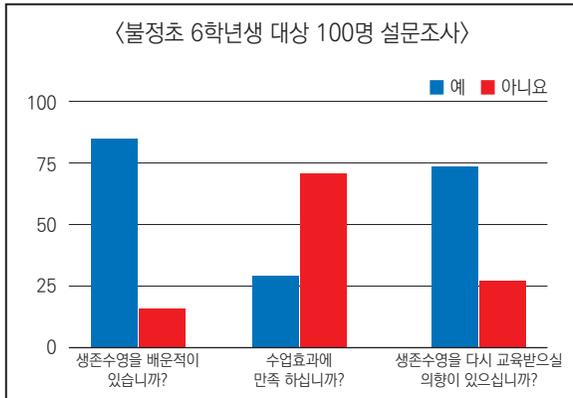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 효과적인 생존수영이 이루어진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일본은 1955년 수학여행을 가던 168명의 학생이 선박 침몰 사고로 숨진 뒤 모든 초등학교에서 생존수영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운하가 많은 네덜란드에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수영을 가르쳐 2학년이 되면 옷 입고 신발을 신은 채 25m를 가는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존수영이 진정한 생존을 위한 수영이 되기 위해선 효율성이 아닌 효과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또는 사업) 내용

III 효과성 있는 생존수영을 위한 정책제안 - 1

2017년 인천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중학생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렸지만 30분간의 생존수영으로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당시 학생이 했던 생존수영은 입새뜨기라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보던데 생존수영은 반드시 필요한 교육과정을 하나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생존수영을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또래 친구들과 물놀이를 가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즉, 보호자 없는 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될 기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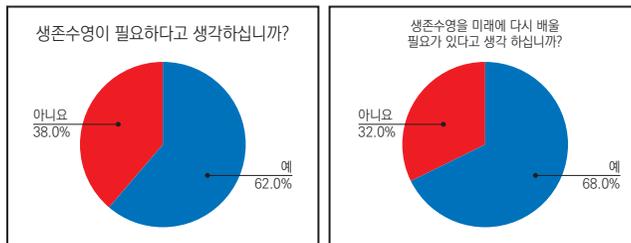


이에 생존수영의 필요성과 현재 운영결과를 2019 학년도 6학년 학생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생존수영을 배웠지만 시간이 지나 잊어버리거나 (39%) 강습시간이 짧아 효과가 없거나(18%) 강습내용이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답변도(9%) 있었습니다.

또한 생존수영을 향후 다시 배울 필요가 있다고 답변한 경우는 (73%)로 많은 학생들이 생존수영이 꼭 필요하지만 현재 생존수영을 자신있게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19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생존수영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은 (62%) 였으며,

생존수영교육이 미래에 다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8%)였습니다.

〈한솔고 1학년생 대상 100명 설문조사〉



IV 효과성 있는 생존수영을 위한 정책제안 - 2

앞서 제시한 자료들을 근거로 저희는 효과성 있는 생존수영을 위한 2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초등학교 교육과정으로 국한된 생존수영 수업을 고등학교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이유는 현재 고등학생들은 생존수영이라는 교육자체를 받지 못하였기에 설문조사와 같이 생존수영 자체를 생소하게 여기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에 반해 고등학생들이 보호자 없이 물놀이 노출될 기회는 초등학교보다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고등학교에서 수영을 배운다는 생각은 입시와 연결될 수 있겠지만 생존수영 교육과정을 영법이 아닌 생존만을 위한 수영교육으로 진행한다면 짧지만 효과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방학때를 이용하거나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 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3학년이라도 일반계 고등학교의 2학기는 수업진행이 어려울 만큼 수업난항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 이런 시간에 생존수영교육을 한다면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생존수영의 수업 방법을 생존에 유리한 수영방법 교육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앞서 기사에 나온 학생의 경우 30분 넘는 시간동안 버틸 수 있던 수영방법이 앞새뜨기 였습니다. 일반인이 30분 넘게 물 속에서 수영을 하며 버티기는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생존수영은 영법이 아닌 생존을 위한 물속에서 버티기를 위한 방법을 배우는 것이기에 일반수영과는 달리 좀 더 짧은 시간안에 배울 수 있습니다. 현재 생존수영 방법은 앞새뜨기 외에도, 새우등 뜨기, 엽드려 뜨기, 누워 뜨기 등이 있습니다. 아직 수영선진국에서도 소개되지 않은 앞새 뜨기식과 같은 생존수영 확산은 안전불감증 국가라는 오명을 벗는데 도움을 크게 줄 것입니다.





현재 성남시에서 이용되고 있는 생존수영장은 4곳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관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분당 올림픽스포츠크터



위 시설에서 현재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1년에 10시간 이내, 그것 또한 영법을 가르치는 수업이 포함된 수업 체계에선 실질적인 생존수영 수업효과 기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영 인프라는 OECD 선진국들 가운데 꼴찌그룹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수영장을 갖춘 학교수가 전체의 1%에도 훨씬 못 미친다고 하는데 생존수영 의무교육 확대를 위해 어린이 수영장 수를 대폭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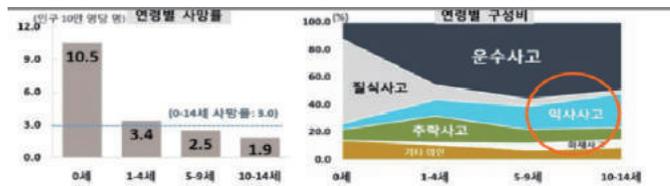
하지만 앞서 얘기 같은 생존수영으로서의 특징점 가운데 하나는 정규 수영장 시설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웬만한 크기의 간이시설 수영장이나 수영장에서 잘 활용되지 않는 유아풀이나 바닷가에 설치된 가두리 시설 등 간이시설들을 활용한다면 큰돈을 들이지 않고 전 학년이 수업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의 기대효과

성남시 생존수업 교육지원 조례 마련과 실질적 대상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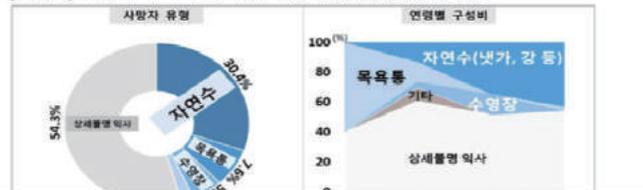
현재 생존수영은 초등학교 3,4학년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대상범위가 넓어진다고는 하지만 정작 생존수영이 필요한 대상은 중·고등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초등학생때 보다 청소년시기에 익사관련 사고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보호자와 함께 있는 초등학생보다는 보호자와 함께 있지 않는 시간이 많은 청소년시기에 더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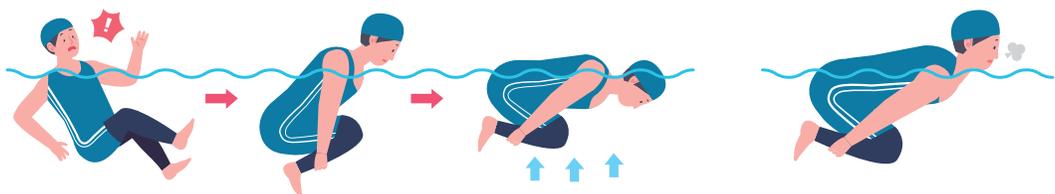
[표 3] 비의도적 사고 연령별 사망원인 순위, 2014-2016년(3개년 합산)

순위	14세 이하	0세	1-4세	5-9세	10-14세
1	운수사고 42.5%	질식사고 61.8%	운수사고 45.7%	운수사고 56.1%	운수사고 49.3%
2	질식사고 17.9%	운수사고 12.2%	추락사고 19.1%	익사사고 16.8%	익사사고 24.3%
3	익사사고 14.5%	추락사고 8.4%	익사사고 12.2%	추락사고 10.4%	추락사고 9.0%
4	추락사고 12.3%	익사사고 3.8%	질식사고 10.6%	질식사고 5.2%	화재사고 6.3%
5	화재사고 3.1%		화재사고 1.6%	화재사고 4.6%	질식사고 2.8%

[그림 6] 어린이 익사사고 사망 특성, 2014-2016년(3개년 합산)



이에 따라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생존수영 의무교육 대상자를 확대해서 생존수영의 필요성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관련 법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시 경우 생존수영교육 관련 조례가 통과되어 서울시 교육감이 현재의 생존수영 수업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교육과정을 만들게 됨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생존수영 교육이 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성남시에서도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까지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 교육지원 조례 마련과 실질적 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보다 나은 생존수영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9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아이디어를
입력하세요**
WWW
here hat hy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쓰레기 투기 장소 지정 및 스마트빔

생각대로 림



< 소속기관 >

복정고등학교

< 제안자 >

안수현 김주영 김지은
이주혜 박시현



제안주제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쓰레기 투기 장소 지정 및 스마트빔



1. 제안하는 내용의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인식 내용 등

지금 우리가 거주하며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하는 배경이 되는 성남시는 골목길이나 언덕, 공동주택이 특히 많은 지역 중 하나이다. 이러한 성남시에서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쓰레기 무단투기이다. 성남시의 주민으로서 길거리를 지나다니며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있어도 쓰레기가 무단으로 버려져 있는 것을 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쓰레기들로 인하여 무단 투기된 장소를 지나갈 때마다 불쾌해 지고는 한다. 골목길이나 주택가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는 쓰레기 처리장이 잘 마련되어 있는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집 앞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면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혹은 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의 집 앞에 버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들은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쓰레기 투기 장소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가로등 밑, 전봇대 밑, 혹은 외진 곳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한다.

이러한 쓰레기 무단 투기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쓰레기 수거 차량은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들을 수거해야 해 불필요한 노동력이 더욱 요구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들은 다음날, 그 다음날까지 남게 되어 악취가 나고 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으며 주민들 간의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며 그 지역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들은 더욱 더 문제가 되기 십상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차적이고 부수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골칫거리이다. 이차적인 문제로 인해 성남시의 주민은 고통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성남시는 쓰레기 무단투기의 해결방안으로 여러 정책을 내놓고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

예를 들자면 쓰레기가 많이 무단으로 투기된 곳에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팻말을 붙여 놓거나, 그러한 곳에 CCTV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투기한 사람에게 벌금을 내게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과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은 여러 노력들이 결과적으로 좋은 해결책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 조에서는 쓰레기 무단 투기문제가 성남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책제안 대회에 나오게 된 우리 조는 이러한 단순하면서도 잘 해결되지 않는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조사하며 조사한 내용 중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해결책을 성남시에 제안하고자 한다.



2.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또는 사업) 내용

쓰레기 투기 장소는 각 관할구의 행정복지센터가 달에 한 번씩 지정위치를 바꾸어 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지도에 게시하고, 인터넷으로 쉽게 위치를 알 수 있고, 바뀌는 위치를 수시로 알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원하는 사람이 필요한 곳에 새로운 쓰레기 투기 표지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는 쓰레기 투기 장소를 쉽게 정할 수 없는 이유는 쓰레기 투기 장소를 사람들이 꺼려하기 때문인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이 투기 장소 지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공식적으로 설치된 쓰레기 투기 장소도 인터넷 및 오프라인 만족도 평가를 통해 만족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구역은 해산하여 적절한 위치에 투기 장소가 놓이도록 한다. 이런 방법으로 일정 기간이 되면 수시로 변경함으로써 쓰레기 투기 장소가 집 근처인 것에 반감을 보이는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쓰레기 투기 장소가 어디인지 알 수 있도록 쓰레기 투기 문구가 적힌 이미지를 송출하는 스마트빔을 설치한다. 또한, 무단 투기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에는 무단 투기를 하지 말라는 문구가 적힌 이미지를 송출하는 스마트빔을 설치한다.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쓰레기 무단 투기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쓰레기 투기 장소에는 원형으로 '여기에 버려주세요'이라는 스마트빔을 이용해서 그 원에 버리게 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지원하여 쓰레기 투기 장소를 지정하고 두 가지의 스마트빔을 이용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또한, 쓰레기 수거 차량의 인력을 증원하여 쓰레기 수거 동선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그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쓰레기 수거 시간을 규칙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으로 주민들이 시간에 맞추어 쓰레기를 내놓을 수 있으므로 길가에 쓰레기가 놓여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쓰레기 수거 차량이 규칙적으로 수거를 한다면 낮부터 사람들이 오가는 길가에 쓰레기가 놓여있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거 시간 이후에 길가에 놓은 쓰레기가 밤 동안 바깥에 놓여 길고양이와 차량 등에 의해 훼손당하거나 부패해 악취를 풍기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지정된 쓰레기 투기 장소에 쓰레기 수거 차량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쓰레기가 지나치게 많이 모여 불편감을 조성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3.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사업) 의 기대효과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해 지역주민들 간에 쓰레기 위치 문제, 악취 문제 등으로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을 실행하게 된다면 주민들간에 다툼이 확연히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주택가에 사는 주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 다툼으로 인해 주민들 간에 관계가 나빠진다고 한다. 만약 이 정책을 실행하면 문제가 해결되어 주민들 간에 좋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악취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다. 쓰레기는 무단 투기되면 수거되지 않을 시에 부패되고 심각한 악취를 발생시킨다. 길고양이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파헤치면 거리가 더러워지고 벌레가 생기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관할 시 내에 있는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러한 문제들로 수많은 불편신고가 들어온다. 제안된 정책을 실행하면 불편신고 횟수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스마트빔을 주택가의 어두운 골목에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에 대한 문구를 바닥에다가 비추면 쓰레기 무단 투기가 줄어들 것이다. 실제로 울산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에 대해 스마트빔을 설치해서 그 양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어두운 곳을 스마트빔으로 비추니 단속을 하게 되면서 범피예방까지 가능하다.

또 쓰레기문제로 현재 상황에서 부족한 인원에 단속반까지 돌아야 한다. 그러나 이 방안을 사용하면 그 수를 줄일 수 있고 쓰레기 문제에 많은 인력을 쓰지 않으면서 우리 지역 다른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해결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리 하여 우리는 성남시 주민들의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성남시로서 한 발짝 나아 갈 수 있을 것이다.







제9회 성남시 정책제안대회 제안서 자료집

인 쇄 : 2019년 11월

발 행 : 2019년 11월

발행처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성남시청소년재단

주 소 :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우13404)

문 의 : 031) 729-9000

<http://www.snyouth.or.kr>

사전 승인 없이 자료집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Seongnam city Youth Happiness Council



성남시청소년재단
SEONGNAM CITY YOUTH FOUNDATION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우13404)

031)729-9000

<http://www.snyouth.or.kr>